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은 KOCHAM 연례만찬 준비 관계로 경제 기사 간단하게 보내드립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10월 미 무역 적자 확대... 에너지 수출 저하 탓

[글로벌 경제]

- Bloomberg: 골드만삭스, "글로벌 성장, 향후 10년간 매년 3% 미만"

[에너지]

- Bloomberg: 배터리값 처음으로 상승.. 내년에도 하락 않을 듯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월마트 소비자들, 인플레이에 품목별로 대응한다

[미국 경제]

WSJ: U.S. Trade Deficit Widened in October on Lower Energy Exports 10월 미 무역 적자 확대... 에너지 수출 저하 탓

- 무역 적자 확대는 원유, 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관련 추출이 들어든 것.
- 화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가 10월에 늘어나 계절 조정치로 7백82억불로 나타났다.
- 수출은 0.7% 줄었는데 주로 천연 가스와 원유, 의약품 분야에서 줄었다. 에너지 가격도 하락중이다.
- 미국의 수입은 주로 자동차, 산업재가 이끌었다.

WSJ 기사

[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What Does World Economy Look Like Through 2075? Here's What Goldman Sachs Thinks 골드만삭스, "글로벌 성장, 향후 10년간 매년 3% 미만"

-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까지 10년간 매년 글로벌 성장이 3.6%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3% 미만이라는 것.
-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앞으로 되풀이 할 것 같지 않으며, 달러의 예외적인 강세도 향후 10년 동안 둔화될 것이다.

- 국가간 소득 불평등은 감소하겠지만 국가내의 경제적 계층 간에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.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

Bloomberg: Battery Prices Climb For First Time Just as More EVs Hit Market

배터리값 처음으로 상승.. 내년에도 하락 않을 듯

-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배터리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했으며, 내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.
- 리튬용 배터리 글로벌 가격은 7% 오른 킬로와트당 1백51불로 상승했다.
- 특히 전기자동차와 트럭 모델이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높은 배터리 가격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BC: Walmart CEO says shoppers are being more selective as they deal with inflation

월마트 소비자들, 인플레이에 품목별로 대응한다

- 월마트 CEO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, 품목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. 인플레이의 압력에 더 민감한 품목이 있다는 것.
- 월마트는 소비자들이 비싼 고기 대신 핫도그, 콩, 땅콩버터와 같은 더 저렴한 단백질을 구입하고 있으며, TV, 의류, 가정용품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.
- 한편 월마트는 저렴한 식료품을 찾아 월마트로 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. 월마트의 식료품 시장 점유율 성장의 약 75%는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소비자 덕이었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Unsubscribe_office@kocham.org)

12/12/22, 3:00 PM

Constant Contact

Constant Contact Data Notice

Sent by office@kocham.org